

#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보이는 남녀 간 선호도 차이\*

이 기 학† 조 미 랑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의 남녀 간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657명(남학생 311명, 여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흥미, 직업적 성특성, 그리고 사회적 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진로타협과정을 측정하였다. 진로타협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6개의 흥미영역 각각에 대해 흥미일치여부 2 \* 남성적 직업과 여성적 직업 2 \* 사회적 명성의 고저 2의 8개 직업군을 구성하여 각각의 직업군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여 쌍별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흥미, 사회적 명성, 그리고 성특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으며, 이 차이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발생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명성, 흥미, 그리고 성특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인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흥미, 성특성, 그리고 사회적 명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를 선택할 때 이 기 학

† 교신저자: 이기학,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진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교수, E-mail: khlee2445@yonsei.ac.kr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2-0003-H00019).  
† 교신저자 : 이기학,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진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전화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최근 몇년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대학신입생들이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통해 예상되는 걱정거리로서 학업과 진로문제를 우선 순위로 꼽을 뿐 만 아니라, 진로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이런 현상은 국내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진로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nah & Robinson, 1990). 또한 진로 및 전공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믿고 있거나 이상적인 결정을 한 경우가 매우 많다(Dziuban, Tango, & Hynes, 1994). 이러한 현상은 최초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 결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이 매우 일시적이며, 그 과정에서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전생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최초로 전공결정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많은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에서 개인이 원하는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 사이에서 그 격차가 가장 작은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는 타협을 하게 된다.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진로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진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과정은 진로의사결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Gati, 1993). Leong(1993)에 의하면, 타협과정이란 직업세계에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좁혀가

는 과정이다. Gottfredson(1981)은 이 타협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인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모든 진로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타협과정과 연관된다. 가능한 진로대안과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로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Gati, 1993), 개인적 특성과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능한 진로대안을 선택하는 진로의사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진로대안의 선택에서 타협과정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황매향, 김계현, 2001). 이러한 타협과정을 정리한 Goffredson(1981)의 이론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원칙이 개인의 자아개념을 토대로 타협해야 진로대안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아개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자아개념을 고려하여 타협을 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진로자아개념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진 특성성, 사회적 명성, 그리고 흥미 요인을 고려하여 자신의 직업적 자아개념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자아개념과 비교하여 타협을 해야하는 정도와 범위에 따라서 타협의 순서가 영향을 받게 된다(Gottfredson, 1996).

기존의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에서 남녀차이를 보이고 있다. Goffredson(1981)의 타협이론에 따르면 진로목표를 타협해 가는 과정에서 자아개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자아개념에 개인의 성이 주요한 구성개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때 남녀에 따라서 진로타협을 고려하는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특성과 직

업적 성특성의 일치 여부, 사회적 명성의 정도, 그리고 자신의 흥미와의 일치를 고려하는데 있어서의 남녀차이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성특성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이러한 직업의 성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업의 성고정관념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White, Kruczek, Brown, & White, 1989). 특히,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탁진국, 1995). 여성들은 전형적인 여성직업을 선호하고 남성들은 전형적인 남성직업을 선호하는 등,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성특성을 가진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stin & Panos, 1969; Harmon, 1971; Scott, Fenske, & Maxey, 1974). 대학 전공결정과정의 타협과정에서의 남녀차이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명성과 직업의 성유형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명성이 다소 낮더라도 흥미와 일치하는 전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ong, 1988; Taylor & Pryor, 1985).

타협과정을 통해 진로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로와 대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이 타협과정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직업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기존의 타협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이 어떻게 타협을 해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Goffredson(1981)이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의 타협과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이후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바로 이와 같은 타협과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과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Hesketh, Durant, & Pryor, 1990;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Holt, 1989).

이상과 같이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불일치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진로대안의 타협과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대안을 동시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선택 변인-사회적 명성 대 흥미, 사회적 명성 대 성특성, 그리고 흥미 대 성 특성-들 간의 비교로 한정된 점이다(Gati, Houminer, & Aviram, 1998;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Leong, 1993; Taylor & Pryor, 1985). 이와 같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순서에 의해 진로와 관련된 변인을 제거해가는 지에 대한 확실한 모형을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진로선택과정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진로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한 것이었다. 특히, 직업세계의 변화가 급속이 이루어지고 엘리트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한국사회는 서양의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직업의 의미를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가족 및 조직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여(Gysbers, Heppner, & Johnston, 1997; Osipow & Fitzgerald, 1996), 직업이 자신과 가족의 신분 및 과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타협과정을 정확히 고려한 현실적인 진로의사결정모형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명성, 흥미, 그리고 성특성을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는 타협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타협과정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요인-성차이, 그리고 학년차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특성과 직업적 성특성과의 일치, 사회적 명성 정도, 그리고 흥미와의 일치에 대한 진로타협과정에서 어느 요인에 더 선호도를 보이는가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남녀차이와 더불어 학년차이, 그리고 성차이와 학년차이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업세계에서의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타협과정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방법

####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657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311명(47.3%)이며, 여학생이 346명(52.7%)이다. 또한 이들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20명(33.5%), 2학년 249명(37.9%), 그리고 3학년 188명(28.6%)이며 이들의 연령 분포는 14-19세로 평균 연령이 16.47세(표준편차 .98세)이다.

#### 측정도구

**직업흥미측정도구.** 조사대상자의 직업흥미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선호도검사(행동과학연구

소, 2001)를 사용하였다. 직업선호도검사는 Holland (1973)의 흥미이론에 따라 현실형, 탐색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리고 관습형의 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영역, 유능성영역, 직업영역, 선호분야영역, 그리고 일반성향영역에서 6가지의 성격유형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흥미영역을 가장 잘 구분해주는 활동영역을 측정하여 조사대상자의 6가지 성격유형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성격유형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통해 얻은 내적일관성신뢰도계수는 6개 영역에 대해 .69-.89의 범위를 보였다.

**직업선택타협측정도구.** 조사대상자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역에 더 선호를 보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직업의 성특성, 흥미, 그리고 사회적 명성의 3요인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쌍별비교를 실시하였다. 3요인의 특성을 비교하여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쌍별비교를 하기 위해 총 84개의 직업쌍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6개 흥미영역 각각에 대해 흥미일치여부 2(흥미일치 대 불일치) \* 성특성 2(남성적 직업 대 여성적 직업) \* 사회적 명성 고저 2(높은 사회적 명성 대 낮은 사회적 명성)의 6개의 직업에 대한 쌍별비교를 위해  $(8*7)/2=28$ 개의 쌍을 구성하였다. 그런 후에 흥미와의 일치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현실형과 사회형, 탐색형과 진취형, 그리고 예술형과 관습형은 서로 흥미 영역이 반대되는 것으로 개인의 흥미영역에 따라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흥미와의 일치와 불일치를 둘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8개의 직업쌍을 3개씩 구성하여 흥미와의 일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총 84개의 직업쌍을 구성하였다. 이 때, 흥미영역에 반대되는 흥미영역(현실형 대 사회형, 탐색형 대

진취형, 예술형 대 관습형)은 동일한 쌍들을 비교하여 역환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각의 직업쌍을 비교하여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된 직업이 흥미와의 일치, 개인의 성과 직업의 성특성과 일치, 그리고 사회적 명성이 높은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현실형 성격유형을 가진 남학생이 항공기조정사(성일치, 흥미일치, 높은 명성) 대 비행기승무원(성불일치, 흥미불일치, 높은 명성)에서 항공기조정사를 선택하면 성특성 일치에 1점, 흥미 일치에 1점, 그리고 사회적 명성에 0점을 부여하였다.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선호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진로타협과정의 측정도구를 제작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한 쌍별비교쌍의 제작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흥미영역별 직업분류를 실시하였다. Holland(1978)의 이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안창규(1997)와 김정택, 김명준과 심혜숙 (2000)의 분류에 기초하여 6개의 흥미영역별로 50개 씩의 직업을 분류하였다. 흥미의 일치와 불일치 여부는 자신의 가장 높은 흥미를 보인 영역과 같은 직업을 선호하면 일치집단으로, 자신의 흥미영역과 반대의 흥미영역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호하면 불일치집단으로 구분하였다(예를 들어, 현실형 흥미영역을 보인 사람이 흥미의 반대쌍인 사회적 흥미영역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대상자의 흥미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현실형 40명(6.1%), 탐색형 88명(13.4%), 예술형 138명(21.0%), 사회적 171명(26.0%), 진취형 165명(25.1%), 그리고 관습형 55명(8.4%)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50개 씩으로 구성된 6개의 흥미영역

별 직업에 대해 성특성별 직업분류를 실시하였다. 직업의 성특성별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는 중앙고용관리소(1998), 노동부(199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2002)과 통계청(2001)의 직업분류 기준을 토대로 여성유망직업정보와 각 직업의 여성인력 참여비율을 계산하여 여성의 비율이 60%이상인 직업은 여성적 직업으로, 여성인력의 비율이 30%미만인 직업은 남성적 직업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위의 2가지 분류를 통해 흥미와 성특성으로 구분된 직업을 다시 사회적 명성별로 직업분류를 실시하였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2002)과 통계청(2001)의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명성을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을 토대로 크게 상, 하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직업에 대해 대졸이상이면서 단순평균임금이 196.9만원 이상이면 사회적 명성이 상인 직업군으로, 중졸이하이면서 단순평균임금이 140.6만원 이하이면 사회적 명성이 하인 직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이 크게 3단계를 통해 분류된 직업군들 각각에서 최종적으로 쌍별비교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하나씩의 직업을 선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쌍별비교를 위한 직업을 선발하기 위해, 직업심리학 및 진로상담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에게 안면타당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선정된 직업선택타협측정도구의 직업내용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 결 과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흥미, 성특성, 그리고 사회적 명성에 대한 선호도 수준이 표 1에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타협과정의

표 1.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선호도 점수

	전체 (657명)	남학생(311명)			여학생(346명)				
		합	1학년 (100명)	2학년 (132명)	3학년 (79명)	합	1학년 (120명)	2학년 (117명)	3학년 (109명)
사회적명성	.59(.12)	.61(.12)	.59(.12)	.60(.12)	.66(.11)	.58(.11)	.58(.11)	.57(.11)	.59(.11)
성특성	.56(.16)	.46(.14)	.45(.13)	.45(.14)	.48(.13)	.65(.12)	.64(.12)	.68(.12)	.63(.12)
흥미	.63(.23)	.58(.24)	.60(.25)	.58(.24)	.57(.24)	.67(.22)	.65(.23)	.69(.19)	.66(.24)

( )안은 표준편차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M = .63, SD = .23), 사회적 명성(M = .59, SD = .12), 그리고 성특성 (M = .56, SD = .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_{(1,654)} = 24.04, p < .001$ ). 이 때 반복측정한 집단내 3가지 종속변인인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점수 중 어느 것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선호점수를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 흥미와 성특성( $F_{(2,655)} = 42.10, p < .001$ ), 흥미와 사회적 명성( $F_{(2,655)} = 8.80, p < .01$ ), 그리고 사회적 명성과 성특성( $F_{(2,655)} = 18.07,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선호도의 차이가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F_{(2,654)} = 73.49, p < .001$ ), 학년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명성(M = .61, SD = .12), 흥미(M = .58, SD = .24), 그리고 성특성(M = .46, SD =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가 어느 요인에 기인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Scheffé 사후검증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명성과 성특성( $F_{(2,309)} = 290.55,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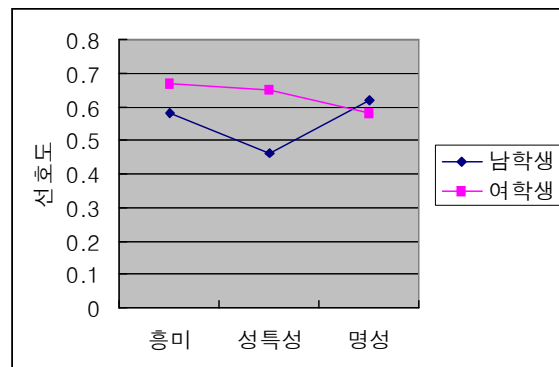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

.001) 그리고 흥미와 성특성( $F_{(2,309)} = 63.22,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흥미( $M = .67, SD = .22$ ), 성특성( $M = .65, SD = .12$ ), 그리고 사회적 명성( $M = .58, SD = .11$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검증에 따르면 흥미와 사회적 명성( $F_{(2,344)} = 39.76, p < .001$ ) 그리고 성특성과 사회적 명성( $F_{(2,344)} = 51.20,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타협과정의 하위요인별로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본 그림 1에서도 나타났듯이, 흥미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남학생:  $M = .58, SD = .24$  대 여학생:  $M = .67, SD = .22$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지만( $F_{(1,651)} = 16.10, p < .05$ ), 학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명성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에는 성별과 학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_{(2,651)} = 3.25, p < .05$ ). 마지막으로 직업의 성특성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남학생:  $M = .46, SD = .14$  대 여학생:  $M = .65, SD = .12$ )( $F_{(1,651)} = 77.58, p < .05$ )와 상호작용효과( $F_{(2,651)} = 4.51, p < .05$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선호도의 남녀차이를 알아보았다. 진로선택은 자신의 자아감을 형성하고 그 자아감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서(Super, 1984), 개인의 전생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진로선택과정은 개인의 직업적 자아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인인 흥미, 직업적 성특성, 그리고 사회적 명성과의 일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Goffredon,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자아감에 영향을 주는 흥미, 직업적 성특성, 그리고 사회적 명성을 고려하는 이루어지는 진로타협과정에서의 남녀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의 선호도는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 그리고 직업의 성특성이 개인의 성과 일치하는 직업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offredon(1981)이 초기의 타협이론에서 제안한 성특성, 사회적 명성, 그리고 흥미의 순서와는 매우 불일치하는 결과이지만, Goffredon(1996)이 타협이론을 수정하여 자아개념과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타협요소의 순위가 변화한다고 제안한 이론 중, 자아개념과의 불일치가 적은 경우나 매우 확고한 진로 방향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타협의 순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Goffredon & Holland, 1996; Tracey & Rounds, 1996).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명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소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탁진국, 1995; 홍두승, 1983).

둘째, 진로 의사결정의 타협과정에서 보이는 선호도는 남녀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명성과 흥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명성, 흥미, 그리고 직업적 성특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

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흥미와 성특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흥미, 성특성, 그리고 사회적 명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사회적 명성이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기존의 연구(탁진국, 1995)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Gysbers, Heppner, & Johnston, 1998) 동양적 사상이 매우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집단주의적 개념보다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경향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남녀차이는 개인의 직업에 대해 갖는 가치관에서의 남녀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직업 가치관에서의 남녀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내적인 가치보다는 승진, 명예, 그리고 봉급과 같은 외적인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여성은 외적인 가치보다는 자아실현, 자기 만족 등과 같은 내적인 가치에 더 의미를 둔다(이기학, 한종철, 1997; Leong, 1993). 이러한 직업 가치관이 진로를 선택하는 타협과정에서의 선호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해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진로타협과정의 3가지 요인의 각각에 대한 성차이, 학년차이 및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흥미와 직업적 성특성에서는 성차이의 효과를 보이며 직업적 성특성과 사회적 명성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업적 성특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적 성특성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Leong, 1988; Taylor & Pryor, 1985).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소 사회적 명성이 낮더라도 여성적인 직업을 더 선호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개인의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Gati, Houminer, & Aviram, 1998; Leong, 1993). 특히, 이러한 결과는 선호하는 흥미 영역에서도 남녀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현실형(남학생: 36명, 90.0% 대 여학생: 4명, 10.0%)과 탐색형(남학생: 75명, 85.2% 대 여학생: 13명, 14.8%)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예술형(남학생: 44명, 31.9% 대 여학생: 94명, 68.1%)과 사회형(남학생: 69명, 40.3% 대 여학생: 102명, 59.7%)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Taylor & Pryor, 1985).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이 흥미를 보이는 영역에서의 남녀차이와 직업 가치관에서의 남녀차이에 기인하여 여성이 자신의 흥미와 성특성에 일치하는 직업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한편, 학년에 따른 진로타협의 선호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Super, 1984). Super(1984)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인 흥미나 성특성보다는 사회적 명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커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성숙 수준을 보여(Lee, 2001), 현실적인 타협 능력이 낮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 학년별 차이를 좀 더 다양하게 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명성의 경우에는 선호도에서 남녀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사회적 명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생애에 있어서 최초의 진로결정 시기인 대학입학 시기가 다가올수록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요인이 사회적 명성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진로의 목표에서 체면과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최종적인 순간에는 흥미와 직업적 성특성보다는 사회적 명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직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Lee, 2001; Leong, 1993; Tak & Lee, 2003).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남녀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외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중요시하여 자신의 흥미와 성역할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전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주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고려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0). *진로탐색검사 활용가이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노동부 (1999). *여성유망직종 70선*. 노동부.
- 안창규 (1997). *진로 및 적성탐구를 위한 코드 분류*.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67-189.
- 중앙고용관리소 (1998). *여성취업가이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탁진국 (1995).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1), 161-174.
- 통계청 (200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 한광희, 최송미, 양은주 (2001). 신입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상담연구*, 제17권, 3-18,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02). *우리나라 직업지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행동과학연구소 (1998). *직업선호도검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홍두승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 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 과정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11-124.
- Astin, A. W., Panos, R. J. (1969). *The educational and vocational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Dziuban, C. D., Tango, R. A., & Hynes, M. (1994). An assessment of the effect of vocational exploration o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1*, 127-136.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 Gati, I., Houminer, D., & Aviram, T. (1998). Career compromises: Framing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505-514.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s., & L. Brook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Jossey-Bass Inc. San Francisco.
- Gottfredson, L. S., & Holland, J. L. (1996). *Dictionary of Holland occupational codes*(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ysber,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 (1998).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MA:Allyn & Bacon.
- Hannah, L. K., & Robinson, L. F. (1990). Survey report: How colleges help freshmen select courses and careers. *Journal of Career Planning and Employment, 1*(4), 53-57.
- Hesketh, B., Durant, C., & Pryor, R. (1990). Career compromise: A test of Gottfredson's(1981) theory using a policy-capturing proced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97-108.
- Hesketh, B., Elmslie, S., & Kaldor, W. (1990). Career compromise: An alternative account to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49-56.
- Holland, J. L. (1978). *Manual for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 L.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olt, P. A. (1989). Differential effect of status and interest in the process of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2-47.
- Lee, K. H. (2001). Career attitude maturity: A cross-cultural study of Korean and United States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8*(1), 43-57.
- Leong, S. A. (1988). *An examination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making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L.
- Leong, S. A. (1993).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88-193.
- Osipow, S. H., & Fitzgerald, L. F. (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4th edition). MA:Allyn & Bacon.
- Scott, C. S., Fenske, R. H., & Maxey, E. J. (1974). Change in vocational choice as a functional of initial career choice, interests, abilities, and sex.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 285-292.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aylor, N. B., & Pryor, R. G. L. (1985). Exploring the process of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 171-190.
- Tracey, T. J. G., & Rounds, J. B. (1996). The spherical representation of vocational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3-41.
- White, M. J., Kruczek, T. A., & Brown, M. T., & White, G. (1989).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4, 289-298.

K C I

##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Level of Career Compromise of High School Students

**Ki-Hak Lee**

**Mi Rang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gender preference regarding the compromise process in career decision 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in liberal arts field. Participants were 657 (male: 311, female: 346)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were questioned about their interests, sex types of occupation, and social prestige which enabled to measure the compromise process. In order to measure the compromise process, this study was composed to 8 occupational group-2(consistent to interest vs. inconsistent to interest) \* 2(male occupation vs. female occupation) \* 2(high social prestige vs. low social prestige)-and investigated to be paired comparison between each pairs. As a result, participants preferred interests, social prestige, and sex types of occupation respectively,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When male students had a preference in social prestige, interests, and sex types of occupation in order, female students preferred interests, sex types of occupation, and social prestige respectively. This results imply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on the final considering factor of making a career decision.

*Keywords : career compromise, interest, sex types of occupation, social prestige*

부 록 1

흥미, 성격성, 그리고 사회적 명성에 따른 대표직업

	현실형	탐색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I,M,SP	항공기조정사	의사	지휘자	한의사	투자분석가	회계사
I,M,sp	안경사	환경위생 검사원	사진기자	여가진행자	상품중개인	일반공무원
I,F,SP	전자출판 전문가	브랜드메이커	웹디자이너	비행기승무원	이미지 컨설턴트	전문비서
I,F,sp	스포츠 마사지사	정보처리 기능사	일러스트레이터	영양사	웨딩설계 전문가	컴퓨터속기사
i,M,SP	한의사	투자분석가	회계사	항공기조정사	의사	지휘자
i,M,sp	여가진행자	상품중개인	일반공무원	안경사	환경위생 검사원	사진기자
i,F,SP	비행기승무원	이미지 컨설턴트	전문비서	전자출판전문가	브랜드메이커	웹디자이너
i,F,sp	영양사	웨딩설계 전문가	컴퓨터속기사	스포츠마사지사	정보처리 기능사	일러스트레이터

I; 흥미일치, i; 흥미불일치, M; 남성적 직업, F; 여성적 직업, SP; 높은 사회적 명성, sp; 낮은 사회적 명성